



리뷰 - 연극공동체 DIC '그대는 봄'



광주 동구 소극장 공연일번지에서 지난 24일 박진희, 문진희, 강인영 배우가 연극 '그대는 봄'에서 열연하고 있다. <연극문화공동체 DIC 제공>

# 평생 의지해온 세 할머니 “봄 되믄 이쁜 옷 입고 꽃구경 가자”

“있을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있을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오승근의 히트곡 '있을 때 잘해'는 곁에 있어야 할 대상이 없을 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미리 잘 하라는 의미다. 특히 우리 부모의 시간은 바쁘다며, 피곤하다며 핑계를 대는 사이 더욱 빠르게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치매 100만 시대, 내년이면 전국 치매 환자수가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온 삶, 결국 재로 남아 흩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 있다. 바로 늙으신 우리 부모님들의 생이다. 그러나 그런 분들의 삶을 허무하지 않게, 아주 유쾌하게 그려낸 연극이 있다. 바로 '그대는 봄'.

지역에서 꾸준히 창작을 펼쳐내고 있는 '연극공동체 DIC'가 지난 24일 소극장 공연일번지에서 평

장계네, 명길네, 민관이네 할머니

'치매'라는 무거운 소재 다루지만

'유쾌함' 잃지 않는 따뜻한 무대

5월17일까지 소극장 공연일번지

범한 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으로 관객들을 만났다. 김정숙 작가가 극본을 쓰고 임흥석이 연출을 맡았다.

“아이고, 참말로 저기하다. 참말로 거시기해”

우리 주위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어르신들의 친근한 말투. 이야기의 중심에는 평생을 자식들과 남편을 위해 모진 희생을 감내해온 어머니들이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티격태격 다투는 장계네와 명길네, 그리고 두 사람을 늘 중재하는 착한 민관이네. 세 할머니는 화투를 치고, 아들이 사다 준 점퍼를 자랑하고, 동네 소식을 전하며 함께 늙어간다. 소극장의 작은 무대는 이들의 일상을 조금의 거리감 없이 펼쳐낸다. 관객은 마치 시골 평상에 앉아 그들의 수다를 엿듣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하지만 웃음 속에도 외로움은 스며 있다. 자식과 연락이 끊긴 민관이네, 사별 후 강아지와 단둘이 사는 장계네, 언제나 아들이 찾아오길 기다리는 명길이네. 외로움을 감춘 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던 어느 날, 착한 민관이네가 치매 진단을 받는다.

기억을 잃어가는 친구를 위해 장계네와 명길네는 동분서주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실상가상으로 장계네 강아지인 손심이마저 세상을 떠나고 만다. 함께 손심을 물어주던 세 할머니는 한가지 약

속을 한다. “우리 봄 되믄 이쁜 옷 입고 꽃구경 가자”

작품은 소극장만의 친밀한 매력을 극대화하며 관객과 배우 사이의 벽을 허물었다. 특히 무대 위 어머니들의 모습을 통해, 관객들로 하여금 저마다 마음속에 간직한 어머니, 할머니를 떠올리게 만든다는 점이 인상 깊다.

민관이네가 치매 진단을 받는 장면에서는 배우가 관객을 향해 소리친다. “바쁘다고 안 오고, 멀다고 안 오고, 돈 없다고 안 오고!” 어떤 관객은 “나한테 하는 이야기인가?”라며 윙크하는 모습이었다. 공연 중 갑작스레 지목당한 한 관객은 무대 위에 ‘의사 역할’을 맡았고, 장계네, 명길네, 민관이네가 돌아가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할 때는 관객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작품의 가장 빛나는 매력은 끝까지 유쾌함을 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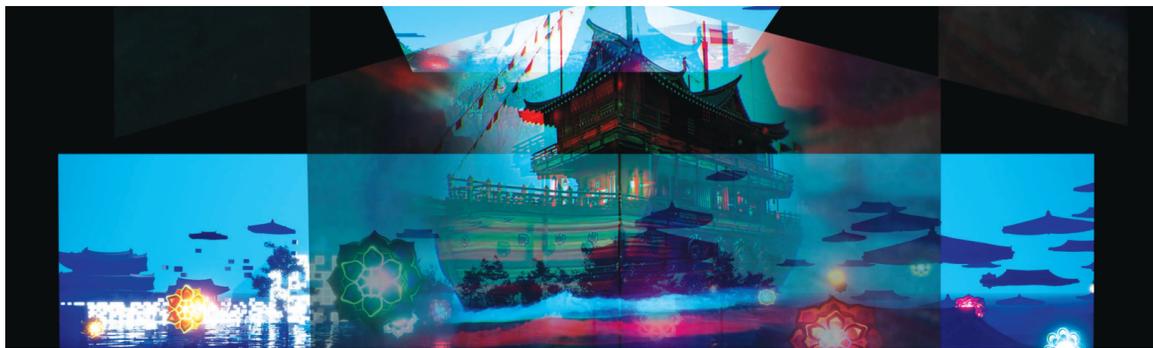
지 않는다는 데 있다. 부모님의 치매라는 다소 무거운 소재를 다루면서도 억지 눈물을 강요하지 않는다. 오히려 눈시울이 붉어질 듯한 순간, 경쾌한 트로트와 신나는 댄스가 무대를 채우며 다시 한 번 환한 웃음을 끌어낸다.

슬픔과 웃음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관객들은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유쾌하면서도 따뜻한 무대는 오래도록 여운을 준다.

임흥석 연극공동체 DIC 대표는 “누군가의 아내이자 어머니였을 평범한 세 할머니의 시원시원한 유머와 따뜻한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며 “이번 공연을 통해 자식과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이들에게 또 따스한 봄바람이 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그대는 봄'은 오는 5월 17일까지 이어진다. 전석 2만5000원. 티켓링크 예약.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무등, 바다와 대지의 노래.'

<아트주 제공>



ACC 복합전시2관 중앙홀에서 5월 4~5일 '죽지 않고 또 왔네' 공연이 펼쳐진다.

<ACC 제공>

## 광주정신의 흐름 '무등, 바다와 대지의 노래'에 비추다

아트주, 대형 미디어작품

5월 2일 송하동 CGI 전시

고려와 조선을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광주정신을 미디어에 담은 작품이 관객을 찾아간다.

아트주(대표 정현기)는 대형 미디어작품 '무등, 바다와 대지의 노래'를 오는 5월 2일(오후 4시) 남구 송하동 CGI에서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현대무용 8명(마고유니버스 무용단)이 함께하는 융복합 콘텐츠로 진행돼 눈길을 끈다. 시각적, 청각적, 감성적 요소를 현대 아우른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 1년여에 걸쳐 기획, 제작된 이번 작품은 총괄기획은 정현기, 총연출은 미디어아티스트 신도

원이 맡았다.

주제가 상징하는 것처럼 이번 작품은 '호국'이 어떻게 무등정신, 광주정신으로 전이되고 승화됐는지를 조망했다. 정지장군, 김덕령 장군의 영웅적 삶과 함께 그 이면에 일반 민중의 저항정신도 드러워져 있다.

정현기 대표는 “이번 작품은 지역 기반 콘텐츠를 만들어보고자 기획했다. 무등정신, 광주정신은 무엇일까를 고민한 끝에 미디어아트로 담아냈다”며 “고려 말 정지장군부터 현대에 이르는 광주정신의 흐름을 깊이 있는 서사로 풀어냈다”고 전했다.

총연출을 맡은 신도원 작가는 “이번 작품은 무엇보다 스케일이 크고 지역 서사를 모티브로 광주정신을 구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광주정신이

역사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로 이어온 과정을 함축적으로 표현했다”고 말했다.

작품은 모두 6막으로 구성됐다.

1막 '광주의 탄생'에서는 무등산의 탄생설화를, 2막 '정지장군의 노래'에서는 정지장군의 정신과 업적을 담았다.

3막 '김덕령 장군의 노래'는 정지장군의 정신이 어떻게 충장공에게 계승됐는지, 4막 '임진왜란'은 이순신 장군이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인지를 주목했다.

5막 '이별의 노래'는 역사 속 희생된 영웅들에 대한 애도의 장을 구현했으며 마지막 6부 '광주여 희망이여'는 광주정신이 어떻게 한강의 '소년이 온다'의 배경이자 핵심으로 자리잡았는지 조명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 않고 또 왔네'

ACC, '애호가 편지' 전 연계 공연...5월 4~5일 복합전시2관

“얼씨구씨구 들어간다- 절씨구씨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장이 열리는 곳이면 어느새 나타나 흥을 돋우는 각설이 춤바. 전국을 떠돌며 가장 낮은 곳의 이야기를 대변하던 광대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까지 찾아왔다.

ACC가 공연 '죽지 않고 또 왔네'를 오는 5월 4~5일 복합전시2관 중앙홀에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현재 진행 중인 전시 '애호가 편지'와 연계해 마련됐다. 무료.

수백 년 동안 서민의 목소리를 품어온 각설이 문화를 재조명하고, 사라져가는 전통의 명맥을 잇기 위한 무대다. 특히 이번 공연은 각설이 춤바에 현대 전자음악을 결합해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독특한 경험을 선사한다.

장터에서 옛가위와 북을 치는 '난장 각설이 오동팔'과 클럽 무대에서 디제잉을 하는 '테크노 각설이 시시'의 협연을 볼 수 있을 예정이다. '애호가 편지'의 전시 참여 작가 '윤결'이 기획하고 '테크노 각설이'가 참여했다.

전시에서는 작가 윤결이 영상 작품 '소릿귀가 열린다'를 통해 역사 속에서 소외된 소리와 존재들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테크노 각설이'는 한국의 트로트와 뽕짝, 태국의 모맘, 베트남의 비나 하우스 등 아시아 대중음악의 리듬을 재구성해 관객이 직접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트렌드롤링 댄스 마차'를 선보였다.

한편 오는 8월 24일까지 ACC 복합전시2관에서 트로트를 주제로한 전시 '애호가의 편지'가 열린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아시아 향 담은 '차' 한잔의 여유

ACC 개관 10주년 기념...카페 진정성, 5개 차 세트 개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카페 진정성(진정성)은 각각 지난 2015년 개관, 대중에게 첫 선을 보이면서 주목을 받았다.

10년 동안 문화와 예술의 가치를 각각 문화적 향유, 삶의 문화로 연계해왔다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이 같은 공감을 매개로 ACC 개관 10주년 기념 아시아 차 상품군을 함께 개발해 눈길을 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진정성과 함께 아시아 차 세트를 개발해 일반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차 세트(차 티백 2개씩 총 10개)는 한국의 세차

녹차를 비롯해 스리랑카 실론 홍차, 인도 아삼 홍차, 일본 가부세차, 중국 보이차로 구성됐다. 각기 5개 차의 풍미를 살렸으며 기호에 따라 찬물이나 뜨거운 물, 음료에 희석해 마실 수 있다. 우수수 전분으로 만든 친환경 티백을 활용한 덕분에 안전성도 담보했다.

김선옥 ACC재단 사장은 “아시아 차 세트는 차가 지닌 고유 매력은 물론 각 기관의 특성과 브랜드의 지향 가치 등이 담겼다”며 “차를 매개로 아시아



ACC x 진정성 차 세트.

<ACC재단 제공>

문화 고유의 특징을 살펴보고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차 세트는 전당 문화상품점 '들락'과 들락 누리집에서 구매 가능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5월 한달 '동구의 오월 기억 여행' 함께해요

매주 토요일 5·18 사적지 투어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오월의 기억을 함께 되새길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광주 동구는 5·18민주화운동 제45주년을 맞아 '동구의 오월 기억 여행(투어)'을 운영한다. 투어는 5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해설사와 함께 5·18 주요 사적지를 둘러보는 코스로, 1회당 40명씩 총 200명을 모집한다.

이번 투어는 '마을 코스'와 '민주 코스' 두 가지로 구성됐다. 마을 코스는 5·18민주광장과 전일빌딩 245, 5·18기록관, 주남마을, 동구인문학당을 순회하며 민주 코스는 계림동의 5·18 최초 발

포지와 국립 5·18민주묘지를 포함한다.

참가자들은 주남마을과 국립묘지에서 헌화와 참배를 할 수 있고, 인문학당에서는 주먹밥 나눔과 기억나눔 토크 등 체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참가비는 버스 탑승료·주먹밥·헌화 체험비 등을 포함해 9000원이며, 미취학 아동은 무료다. 투어 중 SNS 인증 이벤트를 통해 동명동 카페 및 지역 서점에서 사용 가능한 5000원권 쿠폰도 제공된다. 투어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네이비쇼핑 온라인 예약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정이 동구 인문도시정책과장은 “지난해 큰 호응을 받았던 프로그램인 만큼, 올해는 더욱 알차게 준비했다”며 “역사와 현장을 함께 체험하며 오월 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혜원 기자 hey1@